

광주 각화농산물시장 이전 등 백지화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과 이전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노후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지난해까지는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아닌 용자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500~6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자와 자체사업비로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2000만원을 들여 기초용역조사를 실시했으나 정

정부 올해부터 국비 지원 없이 용자로 전환

부지 이전은 수 천억 소요돼 사실상 어려워

부의 사업방침 변경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당시 용역조사에서 상인 대다수는 시설현대화사업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부지 이전을 원했다.

하지만 부지 이전에는 수 천억원이 소요돼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존 부지를 매각해 대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수백억원 이상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노후화돼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 2008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으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9년~2012년 사업비로 국비 123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사에 따른 영업손실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다가 2011년에 사업이 취소돼 지원받은 국비를 전액 반납했다.

이후 페널티를 적용받아 2016년까지 공모사업 재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요원해 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보다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이전에 따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1년 개장했으며 건물 노후화로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부지 또한 5만6200㎡ 규모로 타 지역 도매시장보다 협소한 편이다.

서은홍 기자

쌍둥이 형제 소재 확인 거부 20대 모 검거

영암경찰서는 24일 쌍둥이 형제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소재 확인을 거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방임)로 어머니 A(28)씨를 불집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달 3일 영암군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쌍둥이 형제를 참석시키지 않는 등 방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쌍둥이의 소재를 묻는 경찰에 답변을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하다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년간 쌍둥이 형제의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점, A씨와 쌍둥이를 목격할 영암군 주민들이 없던 점, A씨가 쌍둥이 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하위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강력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 등 다각도로 사안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쌍둥이 소재 파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술 취해 지하선로 들어간 20대 무사히 구조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도시철도 지하선로에 들어갔다가 경찰 등에 무사히 발견돼 구조됐다.

24일 부산 금정경찰서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6분께 20대 남성이 112에 전화해 "지금 지하철로를 걷고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신고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기둥이 보이고 터널로 추정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해 남성의 부근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산교통공사에 신고 사실을 알리고 도시철도 1호선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서행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은 역무원 1명과 함께 범어사역을 출발해 노포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에 승차해 수색을 벌였고, 오전 6시 42분께 범어사역 150m 지점(노포 방면) 선로를 걷고 있던 A(22)씨를 발견했다.

경찰 등은 A씨를 선로 밖으로 이동시켜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 "서면에서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도시철도를 탔는데 어떻게 지하철로 걸어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가 지하철로 침입하는 바람에 1호선 열차들이 시속 15km의 속도로 서행했고,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4분 가량 지연됐다고 부산교통공사는 전했다.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인 80대 보행자 숨져

24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구포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달리던 소나타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A(85·여)씨를 치었다.

이어 무쏘 차량이 도로에 넘어진 A씨를 또다시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50여분 만에 숨졌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박 어선서 냉동 오징어 31상자 훔친 50대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해 수산물을 훔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4일 A(58)씨를 상습아각전박침입죄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께 부산 서구 남부민동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해 냉동 오징어 31상자(약 250kg·시가 8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약 3시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수산물을 훔쳤다고 해경은 전했다.

신고 받은 해경은 부두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해경은 A씨의 여죄와 훔친 수산물 처분처 등을 조사 중이다.



잔물집는 소방대원들 24일 오전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화재 발생, 소방대원들이 내려앉은 지붕 위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고층아파트 난립 막기 위해 조례 개정원안 수용" 촉구

광주시민단체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4일 상업지역 내 고층아파트 용도용역제 조례 개정안이 크게 후퇴했다며 당초 마련했던 원안 그대로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환경연합 등 7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시 의회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처음 세웠던 조례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고층아파트가 난립하면서 안전 문제, 기반시설 부족, 조망·경관 훼손, 일조권 피해 등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관련 문제해결

을 위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실태 조사·공개토론회·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등 과정을 거쳐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역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말 시장이 상공회의소·건설업계 관계자와 면담한 뒤 시는 당초 개정안에서 물러났다"면서 "주상복합 아파트 내 비주거 의무비율에서 오프스틸 등 '준주택'을 제외하기로 한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고 단계적 시행 입장을 밝혔"고 지적했다.

또 "당초 조례 개정안에서 '30% 이상'이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20% 이상'으로 낮아진 것도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시가 개정 취지를 무

색하게 할 정도로 비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조례규정에 어긋나며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관리를 포기한 것이다"면서 "비주거 의무비율에서 '준주택'을 제외하는 등 내용이 담긴 당초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수년 간 마련해 온 개선 대책이 후퇴한 것은 기형적 도시개발로 이익을 키운 건설업계의 경기 활성화 주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시는 주상복합 규제에 따른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업계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의견서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전달했다.

최남규 기자

'정비 마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중정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준비하던 한빛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96만kW급)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춰 선 원인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3분께 한빛원전 2호기 원자로가 가동 도중 자동으로 정지됐다.

한빛본부 측은 2호기 계통 연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발전기 부하탈락 시험을 실시한 뒤 발전소를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며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춰 섰다고 밝혔다.

부하탈락 시험은 발전기가 전력계통에서 분리될 때 발전기와 부속설비 등의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다.

한빛 2호기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정기검사에 돌입해 지난 22일 정비를 마치고 정상 가동을 준비 중이었다. 정기검사 과정에서는 격납건물 내부철관(CLP)과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지 원인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